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 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 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알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494호

서기 2004년 10월 6일 (음력 8월 23일) 수요일

법공양 페이지

29

한생각을 쉬게 되면 모든 고에서 벗어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음이란 것이 얼마나 귀중 한지 모릅니다. 마음은 우주 삼라만상을 벗어내 기도 합니다. 삼라만상, 일체 만물만생을 다 마음 으로 그려내기도 하고 마음으로 짓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마음은 정말 어디에도 비할 수 없는 보물입니다. 그래서 한생각을 잘 굴러면 일체가 생기고 한생각을 쉬게 되면 모든 고에서 벗어나게 되고 모든 것이 소멸됩니다.

어떤 이들은 한생각에 어떻게 그렇게 다 소멸 될 수 있을까 하지만 믿고 물러서지 않는다면 생 사에 관한 문제도 다 놓아줍니다. 죽고 사는 것도 다 놓게 되면 고에서 벗어나는 거죠. 산다 죽는다 하는 것은 말짱 거짓말입니다. 그건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름이 흩어졌다 모였다 하는 것과 같은데 죽는 것이 뭐 별건가요? 무명을 쓰고 살다가 무명이 벗어지면 다른 무명을 쓰고 다시 나오고 하는데 마음의 발전을 해야만이 산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의 발전, 즉 정신계의 발전을 해야만이 물질계의 발전도 할 수 있거나와 여러 가지로 중용을 할 수 있어서 자동적으로 자 유자재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양을 올린다 하는데 그것을 올리는 자는 누구며 받는 자는 누구니까. 지어서 올리는 자도 자기요, 받는 자도 자기입니다. 밥을 한 그릇 먹는다 해도 내면으로 볼 때는 내가 먹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서 먹는 것입니다. 몸속에도 수십억 마리의 모든 생명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 내가 먹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양 한 그릇을 내가 먹는다 하더라도 생각을 잘 하면 공양이 되고 생각을 잘못하면 그냥 밥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잘하면 내가 먹었다, 내가 먹었다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공양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공양을 올리게 되면 공덕을 짓는다 이런 소립니다. 공양이 아니고 개별적인 밥이라면 공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덕이 된다는 것은 내 한 몸의 조직체, 즉 모든 생명들이 한 그릇을 놓고 다 같이 먹는다는 뜻입니다. 다 같이 먹으니가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서로서로 작용을 해주니까 공동체이고 공덕이 되죠. 공덕이 된다는 뜻도 그렇고, 공양을 올린다 하는 것도 그렇고, 공양을 피운다 하는 것도 이런 데서 오는 겁니다. 참다운 공양을 올리면 삼라만상 대천세계 만물만생 전체가 한 그릇을 놓고 내부 에나 외부에나 전체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 덕이 될 수밖에요.

나를 떠나서 상대를 믿는다면 공덕이 될 수가 없고 공양이 될 수 없으며, 마음의 향, 즉 공향이 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공덕이 되 게끔 공양을 올리고, 향을 피우고, 행을 하고, 마음을 내라 이거죠. 바깥으로 아무리 공양을 많이 올리고 시주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하나도 공덕 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조직체로서의 운 영을 하는 거지 조직체가 아니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회사를 봐도 조직체가 이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로 조직체라는 이름 없이도 됩니다. 회장, 사장, 총무, 상무 및 여 러 부서의 직원들로 조직이 돼있기 때문에 질서 정연하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내가 먹 는다 하더라도 내가 먹는다고 하면서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단 한 숟가락을 먹더라도 참다운 공양 이 되게끔 하라는 겁니다.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 것도 돌이 아닌 공 생 공물 공체 공식화 하고 돌아가는 전체가 그것 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든 한 그릇을 올리든 공양은 공양입니다. 더불어 돌이 아 닌 까닭이고 돌이 아니게 돌아가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어찌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만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는 사람은 내가 먹는 밥 한 그릇 가지고도 천도를 할 수가 있는가 하면, 내가 먹는 밥 한 그릇 가지고도 지극하게 공양을 올릴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도리를 알면 아주 멋진 자유권을 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공덕이죠. 내가 먹는다고 해서 공양이 아니 고 올린다고 해서 공양인 것이 아닙니다.

향을 하나 피운다 하더라도 마음은체가 없어서 우주 삼라만상을 한 찰나에 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님음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물질적인 향 이 아니라 마음의 향을 피우라 이겁니다. 잘 생각 해서 공덕이 되게끔 마음을 내는 것이 바로 마음 의 향입니다. 부처님 전에 예배를 올릴 때 제향, 정 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하는데 이 다섯 가지 향이 뜻으로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향 공양을

올려야 합니다. 모두가 다 공양이 되게끔 하고, 공 동체로서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구할 수 있고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첫째 계향이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누가 되지 않게 하며, 스승에게 누가 되지 않게 하며, 자기 자신에게 누가 되지 않게 하라. 그리고 물질계와 내면세계에서 천차만별로 다가오는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리고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라면 화복을 가져올 수 있고, 더불어 나쁜 것을 녹 이고 선행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게 하는 것이 제향 아닌 계향입니다.

둘째 정향이니, 굳건히 주인공을 세우고 나쁘고 악한 게 다가올 때는 한생각 잘 내어 굴러서 놓고, 또 선행을 했던 좋은 일 이 생겼든 감사하게 생 각을 해서 굴러 놓고 물 러서지 않는 것이 정향 입니다.

세째 해향이니, 지혜로 운 마음으로써 물질계와 내면세계를 틀 아니게 관촬하고 체할하는 도리가 바로 해향입니다.

네째 해탈향이니, 만물 만생이 무명에 묶여 있는 것을 풀며 여여하게 다스려 나가는 것인 해 탈향입니다. 그것도 이 름해서 해탈향이지, 해 탈향 아닌 해탈향이죠.

다섯째 해탈지견향이니, 우주 삼라만상 일체 만물만생을 느끼고 다스 립이 항상 밝아서 걸림 없이 구족함을 해탈지견 향 아닌 해탈지견향이라 고 합니다.

이와 같이 다섯 가지 향이 바로 오온의 직결심 이 일심으로서 돌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 다. 왜냐하면 때로는 이것만 딱친다고 이것만, 예를 들어서 의사는 환자 의 병을 치료하기만 하지 다른 건 못하고, 공양하는 자기 전공 분야만 하고, 천문학자들은 천문학

에 관한 것만 하고 다른 분야는 못하는 게 많으면 다가오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타파를 하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윤회성이든지 영계성이든지 업보성이든지 또는 세균성이든지 그 어떠한 고뇌 가 닥친다 하더라도 어느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 는 게 아니라 전부 타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 건을 가져야만이 여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렇고 저렇고 경전 얘기 만을 하지 않고 마음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건 마음 씀씀이와 올바른 행동입니다. 마음을 잘 써야 행동을 잘하고, 행 동을 잘해야 말을 잘하고, 조건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있고, 여여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나게 하는 것도 그 자리 요, 화가 안 나게 하는 것도 그 자리이니 그 자리 에다가 즉시 물러서 화가 안 나게끔 하는 도리를 아셔야 합니다. 화나는 거 하나로 표현을 했지만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든, 구정물을 새 물로 갈아서 먹고 써라 이렇 게 말한 것입니다. 한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가 식 구들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때로는 어머니가

되고, 아내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형이 되고, 사 위가 되고, 아들이 되고 이렇게 바뀌듯이 부처님 마음도 그러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처가 중생 이요, 중생이 즉 마음이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돌이 아니고 동일하다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생각에 우주 삼라만상 대천세계를 지을 수도 있고 또는 일으켜서 생산 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생산 한 것이 만물만생입니다. 이점을 잘 생각한다면 법당에 가서 초를 켜고 향을 사르고 공양을 올 리는데 공양담게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기만하 보면 공양을 올릴 때 내 공양 내 공양 하고 올립니 다. 촛불도 내 것 네 것, 향도 내 것 내 것 하고 서 로 올려려고 아던립입니다. 그 전에 보니까 말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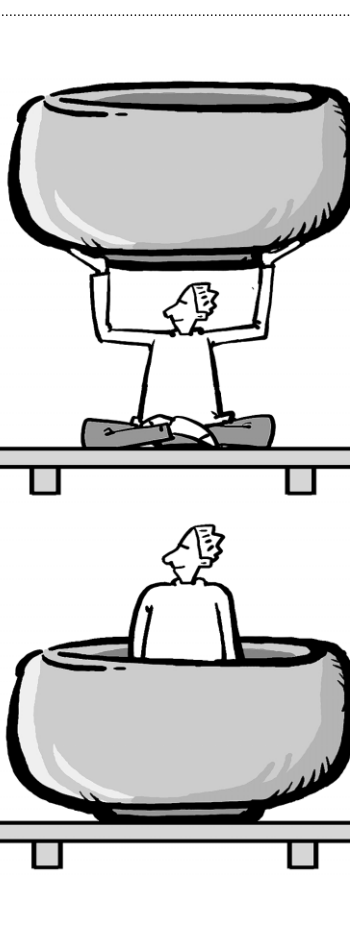


그림 최추현

모두가 공덕이 되게끔 공양을 올리고

향을 피우고 행을 하고 마음을 내라

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빙그레 웃고 옆에서 구 경을 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게 아니죠. 죽을 동 살 중 내가 켜야 되고 누가 치우면 그냥 벌벌 떠는 데 도리를 물러서 그렇습니다.

꽃은 사람의 마음,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겁니 다. 그래서 꽃 공양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은 나쁜 이 아니라 전체 조직이 돼 있는 우주만상이 조직 이 돼서 전달을 하고 찰나찰나 돌아가는데 어떻 게 내 아름다울만 있었습니까. 그래서 꽃 공양 합 니다. 향 공양은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을 내는 것 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생각을 잘 해서 내는 것이 우주법계에 마음과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향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의 마음 의 양식이라고 하지요. 죽은 사람에게는 더욱더 향을 피우죠. 마음의 양식이라고 해서 말입니다. 마음을 내지 않는다면 발전도 할 수 없고 사람이 되고 할 수 없습니다. 목석인데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마음의 향을 잘 풀어야 야 공향이 되지, 마음의 향을 못 킨다면 공향이 아 니라 그냥 물질적인 항일 뿐입니다.

그리고 미(美) 공양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주 삼 라만상 대천세계 만물만생이 시공을 초월해서 잘

나찰나 전달을 하고 돌아가면서 서로 공생 공용 을 하고 있고 공식화하고 있는데 어떤 부처님이 혼자 받습니까, 어떤 귀신이 혼자 받습니까. 또 자 기가 혼자 먹습니까, 혼자 먹어도 혼자 먹은 사이 가 없지요. 내 몸 속에도 생명체가 수십억이 있으 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먹었니 덜 먹었니 할 것도 없이 더불어 함께 하는 공양이지요. 그리고 청수를 올리는 건 사람의 마음, 지혜를 말합니 다. 지혜의 공양입니다.

우리 몸뚱이 자체가 지수화중으로 바뀔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먹든, 꽃을 꺾든, 일을 하 든, 어떤 걸 하든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이 연구를 해서 어떤 물건을 만 든다 하더라도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넓게 생각을 해보면 전체 공동으로 먹고 공동으로 돌아가입니다. 그렇기 때 문에 일하는 것도 바로 공행 이 되는 거고 공양이 되는 겁니다.

안팎으로 공덕이 된다는 것은 내 마음이 공덕을 짓게끔 공양을 해야, 즉 말 하려면 일거일두이 공동 체로 돌아가는 사실을 아시라고 해서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 하고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니 나만 이 살았다고 하지 말고, 내 가 했다고 하지 말고, 내가 했다고도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내 아닌 내 주인공이 작용을 하기에 모두가 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상대 방이 왔기 때문에 왔을 거 고 내가 왔기 때문에 그쪽 에서 오는 것이죠. 모두가 그렇게 서로서로 주고받 고 사는 거지요.

공동체의 도리를 알면 공덕이 될 수가 있고, 공양 을 올릴 수가 있고, 지혜를 고 맑고 밝게 살 수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공동으로 돌아가고, 내가 밥을 먹긴 남이 밥을 먹긴, 하다못해 파자 하나를 먹더라도 공 양인데 이 참다운 공양의 뜻을 어떻게 말을 해야 여

죽네 사네 하고 온통 남을 괴롭히는 거와 같다는 말입니다.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잘 익은 콩은 건드리기만 해도 까지가 탁 터지며 콩이 나옵니다. 그거와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젠 늙었는데 내가 이런 공부는 해서 뭘 좋?' 하지 만, 젊어서 또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젊은 사람보다 더 쉽게 젊어질 거니까 빨리 해야지요. 노 인네든 젊은이든 애든, 남녀노소를 막론해 놓고 이 도리를 알아서 벗어나야지만 다름없 췌바퀴 들듯 하는 애고 속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의증을 만들어 가지고 의증을 내는 데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의증을 낸다면 의증이 의증이 아니죠. 스스로 의증이 나와 그게 진짜 의 증인 것이요, 자기에게서 스스로 의증이 나와만 의증이지 아는 것도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의증을 내는 건 의증이 아닙니다. 생각하면서 뛰고 뛰면서 생각하며, 부지런히 마음의 계발을 해서 비감 으로 뛰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계발 을 하고, 육체적으로도 뛰면서 해야만이 우리 스 님네들이나 여러분이나 다 같이 그 공덕의 의미를 세밀히 알고 실천을 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 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공부 하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애고나 병고와 있다고 해서 그것만 애원하지 말고 그것이 바로 공부할 수 있는 재료 다 이렇게 생각을 돌려서 해야 합니다. 그것만 앞 장세우고 그냥 애똥지똥하지 마시고 경계가 딱딱 이 때문에 내가 공부할 수 있다, 그리고 실천을 해 서 체험을 하겠다 한다면 고도 고가 아니에요.

차가 밀려서 지루하게 기다릴 때 좋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차가 멈추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 냥 떨기니 으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러 나 가고 올이 없이 마음이 가고 오는데 뭐가 지루 합니까, 그렇다고 그냥 꼬투리를 잡아서 망상하 지 마시고 또 망상이라고도 하지 말고 모조리 다가오는 대로 놓고 신성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습디다. 남이 안 하는 신성한 생각, 그계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애고 병고 유전 성 영계성 세균성 등 어떠한 문제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코웃음을 탁 치고 웃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지요.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재료가 또 생겼다. 내가 공부하 라고 내놓은 거니까 아프지 않고 고가 딱치지 않 게 하는 것도 너잖아.' 하고 말게 놓고 모든 것을 타파하고 넘어갈 수 있는 재료로 알고 공부 열심 히 하십시오.

공부를 열심히 못하시면 여러분 몸속에 있는 중생들이 화해서 응신이 되지 못합니다. 응신으 로 화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공부를 못하는 겁니 다. 그러나 속의 모든 자생중생들이 화해서 천백 억 화신, 응신으로서 틀 아니게 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돼야 자기가 바로 그분이 되지요. 그 래서 공부하는 분들은 정신계에 요점을 두고 자 생중생을 제도해야 제도가 된다는 뜻이죠. 자생 중생이 제도 못된다면 내가 제도가 되지 않죠. 마지막 성불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자생 중생을 제도하려면 마음으로 다스리면서, 다섯 가지 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신다면 모두가 공양으로서 아름다운 밝음이 역 령히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 오늘 질문은 제 개인의 질문보다 우 리 여러 불자님들의 질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금생에 깨우치기를 원 하는데 깨달음에 이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마음공부 하다가 깨우치지 못하 고 웃을 벗게 될 경우에 지금의 이 공부기 어떤 공 덕이 되는 것인지 가르침 바랍니다.

▲스님: 우리가 하는 한 가지 한 가지가 공덕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뜻을 아시죠? 밥 한 그릇을 먹어도 내가 먹는 것만이 아니다. 내가 먹어 줌으로써 모두가 다 먹기 때문에 공양이다. 모든 거를 주인공에다가 감사하게 놓고 구정물을 맑은 물로 만들어서 쓰는 것도 그 지리고, 또 그렇게 하 면 그대로 열반이다. 그래서 다음 생애는 부처로 서 법신으로서 응신이 되고 이 세상 끝에 바퀴 속 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 깊고 어떤 건 얇고 이러한 게 아니라 내면으로도 공 양공덕이요, 외부로도 공양공덕이요, 공심 또는 공용 공식화 하고 돌아가는 그 도리를 하나로 묶

